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지속가능한 공급망 포럼, 5월 9일 제주에서 개최

- APEC 회원 전문가 및 국내외 산업계·전문가가 참여하여
글로벌 공급망 지속 가능성 강화를 위한 국제 및 민관 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2025년 5월 9일(금),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APEC 지속가능한 공급망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글로벌 공급망의 지속가능성과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APEC 차원의 전략 방향을 모색하고, 이를 위한 민관 협력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본 포럼은 APEC 무역투자위원회(Committee on Trade and Investment: CTI) 관계자를 비롯한 회원 정부 대표, 산업계, 연구기관 등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석하였다.

이번 포럼은 오충종 산업부 다자통상법무관의 개회 인사말로 시작되었으며, 각 세션별 주제 발표와 종합 패널 토의를 통해 다양한 정책적·실천적 논의가 진행되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공급망 개념이 기존의 효율성 중심에서 지속가능성과 회복력 중심으로 전환되는 흐름에 대해 논의하였다. KDI 국제개발협력센터의 김대용 실장은 '효율성에서 지속가능성으로의 공급망 개념 진화'를 주제로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공급망 개념을 제시하였다. 이어, APEC 사무국의 Akhmad Bayhaqi 선임 애널리스트는 APEC 차원에서 진행된 지속가능 공급망 관련 연구 사례와 전략 방향을 발표하였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 과정에서 민간 부문이 직면한 주요 도전과 이에 대한 대응 사례가 소개되었다. 필리핀 개발연구소의 Francis Mar A. Quimba 선임연구위원은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기업들이 겪는 애로사항과 APEC 역내 공조사례를 발표하였으며, OECD의 Matteo Fiorini 선임연구원은 민간 부문이 주도한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 우수 사례 및 실행 전략을 공유하였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APEC 회원 간 지속가능한 공급망 협력을 위한 전략적 접근이 논의되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의 고종완 전략기획실장은 민관 산업대화의 국내 성공 사례를 중심으로 협력 모델을 제시하였고,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의 Ming Shan 부위원장은 APEC 시스템을 활용한 민관 협력의 발전 방향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진행된 패널토의에서는 ‘APEC 역내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주제로 참가자들이 의견을 교환되었으며,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향이 논의되었다.

산업부는 이번 포럼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지속가능성과 회복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워크숍 결과를 반영한 후속 설문조사와 향후 정책방향 수립에 반영할 예정이다.

담당 부서	다자통상법무관 다자통상협력과	책임자	과 장	최세나 (044-203-5930)
		담당자	사무관	윤가영 (044-203-5933)

